

國內外 뉴스

▲ 國際天然 고무 協定 4 次再交涉會議

— 3 月 9 日 부터 제네바에서 —

天然 고무의 市況安定을 위하여 設定된 國際天然 고무協定(INRA)의 改正交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過去 3 次에 걸친 會議에서도 合意를 보지 못하고, 이제 4 次會議의 結果가 注目되고 있다. 生産·消費 雙方의 意見調整이 急先務이다.

UNCTAD(國聯貿易開發會議)의 國際天然 고무 再交涉會議가 3 月 9 日 부터 20 日 까지 12 日 間 스위스 제네바에서 開催된다. 86 年 10 月 에 있었던 제 3 次會議에 이어 이번이 4 次會議인데, 現行協定을 基準으로 한 修正案에 대한 調整을 하는 것이다.

議論의 焦點은 ① 價格帶의 設定問題, ② 價格表示單位의 問題, ③ 價格帶의 改訂節次問題 등이다.

지금까지 3 次에 걸쳐 再交涉會議가 進行되었으나, 아무런 合意도 보지 못한채 끝나고 말았다. 現行 國際天然 고무協定(INRA)은 87 年 10 月 22 日 에 時效가 만료되므로 이번 會議야말로 그 存廢를 결정하게 된다.

關係者에 의하면, 「어떠한 決定이 나올 것으로 豫想되기도 하나, 新協定의 合意가 이루어져도 各國이 批准하지 않는다면 發效되지 않는다. 그리고 批准節次가 끝나자면 적어도 1 年은 걸릴 것으로 보아 現協定이 失效된 후 半年間은 空白期間이 될 可能性이 있다」고 한다.

《INRA 의 緩衝在庫》

INRA 에 의해 國際天然 고무機關(INRO—本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이 設立되어 있으며, 7 個 生産國과 24 個 消費國, 總31 個國이 加盟되어 있다.

同協定에 의한 價格安定은 INRO의 緩衝在庫의 調整에 따른 市場介人으로 이루어진다. 基

準價格을 1kg當 201.7 말레이시아·싱가포르센트로 設定(85 年 8 月 부터 시작)하고, 그 上下 15%를 上方(下方)介入價格, 20%를 上方(下方)義務介入價格으로 하고 있다.

(ゴム報知新聞 87.3.9)

▲ 베네수엘라, 타이어·튜브 在庫 不足現象

— 87 年 輸入需要 急增展望 —

베네수엘라의 타이어·튜브 市場이 점차 심각한 在庫不足難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關聯業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타이어·튜브 年間需要는 800~900 萬 달러의 수준이나 86 年 베네수엘라 政府의 輸入許可發給 中斷과 外換事情의 惡化로 인한 特惠外換 배정중단 등 일련의 사태로 總輸入規模가 예년의 절반수준에 그쳐 供給物量이 絶對不足狀態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供給不足이 심각한 製品은 産業用 및 農耕用 타이어·튜브로 特裝車用과 포크리프트類 등 産業用 輸送車輛과 트랙터用이 상당히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輸入業界는 政府의 上半期 特惠外換 배정개시

베네수엘라의 타이어·튜브 輸入実績

(單位: US\$ 1000)

國 別	1984	1985	86. 1~6
美 國	7,419	3,749	173
韓 國	2,739	2,466	34
臺 灣	181	738	294
中 共	567	403	296
日 本	346	347	34
브 라 질	353	15	2
其 他	220	157	38
計	11,825	7,875	871

資料: ICE 統計

에 맞춰 輸入活動의 재개를 서두르고 있다.

最近 3年間 베네수엘라의 同品 輸入規模는 84年度에는 1,200만달러로 83年度의 輸入不振으로 인한 輸入急增勢를 보인 한편, 85年度에는 다시 平均水準인 780만달러의 輸入實績을 기록했으나 86年度에는 이의 반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87年度 베네수엘라의 타이어·튜브 輸入需要는 1000萬달러에 이를 것으로 展望되고 있으나, 베네수엘라 政府의 特惠外換 배경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市場狀況이 좌우될 것으로 判斷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타이어·튜브市場은 美國과 우리나라가 市場을 장악해 왔으나 점차 用途別로 輸入先의 多邊化現象이 일어나고 있다. 즉 産業用, 農耕用은 美國, 韓國이 市場을 석권하고 있는 반면, 오토바이用은 中共, 臺灣, 日本 등이 主供給國이며, 自轉車用은 中共, 臺灣, 韓國, 美國, 日本 등이 相互競爭을 벌이고 있다.

隣近國으로는 브라질이 少量進出하고 있으나 아직 미미한 상황이며, 市場을 크게 구분하면 美國產과 아시아圈產으로 양분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타이어·튜브 市場의 競爭狀況은 주요 輸入對象品目別로 다소 상이한 樣相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16인치 이상의 오토바이용 타이어·튜브는 臺灣, 日本, 韓國, 美國 등의 4巴戰인데, 그 중 臺灣이 價格競爭力은 가장 앞서고 있으며 産業用 機械類 및 農耕用 등은 韓·美間의 過점 경쟁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價格競爭에서 앞서 있다.

競爭國別 價格現況

(單位: US\$ / kg)

國 別	16" 이상 오토바이用	産業用 農耕用	自轉車用
臺 灣	2.35	—	3.96
日 本	3.50	—	6.15
韓 國	3.44	3.11	—
美 國	5.36	3.24	—

註: ① 이 價格은 86年度 2/4分期 오퍼 價格基準

② 價格은 各國別 平均價格基準인.

(KOTRA 海外市場 87.3.3)

▲ 나이지리아, 自動車 타이어 輸入關稅 대폭 引上

나이지리아의 自動車 타이어 輸入關稅率이 增進의 5%에서 30%로 대폭 引上됨에 따라 自動車타이어의 輸出擴大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現在 우리나라產 타이어 및 튜브는 現地에서 높은 聲價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지 輸入商에 의하면 韓國產의 品質은 프랑스의 Michelin 및 英國의 Dunlop 製品에 비해 손색이 없으며, 특히 現地에서 生産된 Dunlop 製品보다는 우수한 것으로 評價받고 있는 반면, 價格은 이들 製品에 비해 10~15% 정도 低廉해 가장 人氣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同타이어 輸入關稅率이 87年 2月 25日 부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現地生産이 全無한 우리나라로서는 現地에서 生産되는 有名 브랜드 製品에 비해 價格競爭力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國內業界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要請되고 있다.

現地の 競爭國別 競爭現況을 살펴보면, 中共의 경우 低價로 트럭용타이어에 進出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其他 타이어 分野에서 自國의 輸出支援으로 價格面에서 유리한 立場에 있고 日本 및 臺灣은 점차 競爭力이 약화추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最近 3個年間の 타이어 및 튜브 輸出實績은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의 타이어 및 튜브 國別 輸出實績

(單位: US\$ 1000)

國 別	1984	1985	86.1~11
日 本	8,348	9,877	14,868
사 우 디	47,540	46,154	65,232
이 태 리	4,720	8,205	10,796
西 獨	11,027	12,777	17,825
英 國	11,684	12,168	17,232
美 國	209,307	193,208	155,320
濠 洲	13,587	14,337	16,313
나이지리아	1,885	2,774	3,193
其 他	162,051	140,830	157,821
計	470,149	440,330	458,600

資料: 商工部 輸出統計

(KOTRA 海外市場 87.3.3)